JFMSE, 25(6), pp. 1429~1439, 2013.
수산해양교육연구, 제25권 제6호, 통권66호, 2013.
www.ksfme.or.kr
http://dx.doi.org/10.13000/JFMSE.2013.25.6.1429

중학생의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영심 · 이정은†
(부산대학교)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ic Ability on Receptive Attitude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Young-Sim KANG · Jung-Eun LEE†
(Pusa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influ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ic ability on receptive attitude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The questionnaire survey is used to measure cognitive, emotional empathy ability and the attitude of acceptanc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targeting 300 students of middle school 2,3 grades. Empathy ability consists of 20 questions and the attitude of acceptanc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s composed of 31 questions, which are three sub-areas like personal life, school life and learning activities.

After subjects were divided into top 30%, middle 40% and bottom 30% according to their empathy ability, the attitude of acceptanc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was measu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receptive attitude as a whole and the sub-areas. And the top group with high empathy ability had more acceptable attitude. In particula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cceptance attitude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depending on the level of cognitive empathy ability rather than emotional empathy ability.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Empathy, Receptive attitude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다양한 문화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 차이에서 비롯된다. 자신과 다른 문화와 환경을 지닌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능력이다. 이러한 능력은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기 전에 획득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학교는 성인기에 필요한 사회적 능력을 배양하는데 적절한 장소이다. 왜냐하면 학교에는 다양한 욕구를 지닌 학생들이 서로 복잡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기 때문이다. 자신과 다른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생활하는 사회적 능력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하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왕따 같은 현상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학교문화의 결핍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에서 쉽게 발생하는 따돌림과 또래갈등을

† Corresponding author : 052-263-2024, vanilla33@empal.com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해결하기 위한 전략과 변인을 고려한 연구(Ah, Jeong & Cha, 2005; Lee & Cheon, 2005; Lee & Oh, 2007; Jung, Kim & Lee, 2011; Jung & Lee, 2012; Kim & Lee, 2013)들은 사회적 능력과 정서적 능력을 또래관계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감능력이 이타행동을 유도하는 주요 기제이고(Park, 2002; Hong, 2004; Jo, 2006) 따돌림과 괴롭힘을 방어하는 기제(Lee, 2001; Lee, 2003; Lee, 2007; Kim & Lee, 2011; Hyun, 2012)임을 고려할 때, 공감능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원만한 또래관계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공감능력이 이타행동과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확인되면서, 공감의 정의 또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어원상 공감이란 용어는 '안에 들어가서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초기 공감의 이론들은 사고를 포함한 인지적 요소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최근 공감의 정서적인 측면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공감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의 다차원적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Davis, 1980). Hoffman(1987)도 공감을 타인을 이해하는 인지적 요소와 함께 자기 자신의 상황보다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서적 반응으로 보고 공감의 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는 관점수용으로 정의되고, 정서적 요소는 주로 정서의 공유를 통한 반응을 포함한다(Park, 2004).

국내에서는 Shin(1994)이 공감을 인지적, 정서적, 표현적 요소로 나누어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고, Park(2012)도 공감을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나누어 접근함으로서 공감을 하위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국내외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감은 단일요소로 설명되기 보다는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공감을 어떠한 관점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감능력을 인간의 중요한 사회적 행동으로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기분 · 감정 · 생각을 충실하게 경험하고 수용하며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Selman, 1980)이라면, 사회적 맥락 속에서의 공감적 이해는 대인관계능력을 발달시켜 상대방의 입장에서 심리적 상태를 추론하고 이해하도록 한다(Park, 2004). 특히 청소년 시기의 공감은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아동기의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남을 의식하고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으로 자립하는데 중요한 능력(Gu, 2012)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학교환경은 다문화학생, 새터민학생 및 장애학생과 같이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덕목이 된다. 특히 일반학생과 비교하여 학업적인 면이나 행동적인 면에서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장애학생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학생에게 도전적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능력이 발달된 학생은 장애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신과 다른 특성을 지닌 장애학생을 동료로 인정하며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통해서 장애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인격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더불어 특수교육현장에서도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을 같은 또래로 수용하는지를 성별, 학년, 통합경험유무, 장애학생 접촉유무 등의 변인으로 분석한 연구(Ro, 2008; Han, 2008; Huh, 2010; Jung, 2008; Park, 2008; Lee, 2011; Oh, 2012)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변인이라도 연구결과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장애학생 수용태도의

개선을 위한 지침이나 안내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대부분의 연구가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통합경험유무, 접촉유무와 관련된 단편적인 변인만으로 장애학생 수용태도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생을 내면적으로 수용하는지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나 심리적 능력에 초점을 맞춘 심층적 연구를 통하여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영향 요인을 도출하는 시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타행동과 관련된 사회적 능력 중 공감능력을 통해 장애학생 수용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극히 미비하다. Shin(2009)이 통합경험유무에 따른 초등학생의 이타행동과 공감이 장애수용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나 이 또한 통합경험의 관점에서 이타행동과 공감능력을 설명하고 있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공감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된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장애학생 수용태도는 아니지만 일반학생의 또래수용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Lee, 2005; Kim, 2007) 공감능력이 또래수용도를 예측하는 변인이며,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또래수용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공감능력이 또래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또래관계를 발전시키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학교현장에서 장애학생을 이해하고 또래관계 증진을 위해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감능력의 중요성만큼 공감요소를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복합적 요소로 접근하여 공감의 어떤 요소가 장애학생 수용태도와 관련이 있는지 밝히는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서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감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공감능력의 두 가지 하위요소인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을 연구주제로 정하였으며, 대상은 개인주의적이고 민감한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중학생의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하여 전반적인 공감능력과 인지적 공감능력과 정서적 공감능력 수준에 따라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차이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양한 문화와 개인적 차이가 공존하는 학교환경에서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공감능력을 함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첫째, 중학생의 전반적인 공감능력은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학생의 인지적 공감능력은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학생의 정서적 공감능력은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P도시의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일반학생 3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무응답과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300명의 응답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 of subjects

		N	%
Sex	male female	150 150	50.0 50.0
Grade	2 3	131 169	43.7 56.3
Experience access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yes no	220 80	73.3 26.7
Total		300	100

<Table 1>과 같이 연구대상은 중학교 남녀학생을 각각 150명씩 50:50의 비율로 맞추었으며, 학년은 2학년 131명(43.7%), 3학년 169명(56.3%)로 구성되었다. 장애학생과의 접촉 경험이 있는 학생이 220명(73.3%)이고, 없는 학생은 80명(26.3%)이다.

2. 연구도구

가. 공감능력

중학생의 공감능력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는 인지적 공감능력 10문항, 정서적 공감능력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는 타인의 관점이나 역할을 수용하는 관점수용 또는 역할수용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지적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0)의 대인관계 반응지수(Interpersonal Reaction Index: IRI) 검사 도구를 토대로 Hwang(2008)이 수정·보완한 연구도구를 중학교 수준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IRI검사의 인지적 하위요소는 관점취하기 7문항, 상상하기 7문항의 14문항으로 구성되어졌으나 중학교 학생 수준을 고려한 10문항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공감의 정서적 요소란 공감에 의한 정서반응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서적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Mehrabian과 Epstein(1972)이 개발한 정서적 공감척도(Emotional empathy scale)에서 성별에 영향을 미치는 문항과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항을 제외하여(Seol, Kim & Lee, 2006) 총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조사 도구에 대해서는 연구자와 특수교육전문가 2인이 함께 설문지를 검토하였으며 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힘들거나 애매한 문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선정한 본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Questionnaire on the empathy ability

		Question example	Number of items	Cronbach *a*
Empathy	Cognitive	3. When I read the novel, I feel like a hero in the novel.	10	.82
	Emotional	18. I can make a decision without considering other's emotion.	10	.68
Total			20	.86

본 설문지의 문항은 5점 척도로 구성되어져 '아주그렇다' 5점, '조금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약간아니다' 2점, '전혀아니다' 1점으로 배점이 되었다. 공감능력의 하위영역별로 인지적 공감영역에서 1문항, 정서적 공감영역에서 6문항이 역채점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장애학생 수용태도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장애학생의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된 설문지는 국립특수교육원(1997)이 개발한 장애수용태도 설문지와 Ro(2008)와 Lee(2011)가 일반 고등학생의 장애학생 또래에 대한 수용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설문지를 중학교 학생 수준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공감능력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연구자와 특수교육전문가 2인이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중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문맥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3>과 같다.

본 설문지의 구성은 개인생활 11문항, 학교생활 11문항, 학습활동 9문항으로 총 3영역 3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신뢰도는 .97로 나왔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영역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Table 3> Questionnaire on the receptive attitude to students with disabilities

		Question example	Number of items	Cronbach *a*
Receptive attitude	Personal life	1. I am willing to say 'hello' at first when I meet friend with disabilities.	11	.94
	School life	20. I want to help him/her when friend with disabilities needs help.	11	.94
	Learning activities	26. I'd like to share my book when friend with disabilities don't bring the textbook.	9	.94
Total			31	.97

해석할 수 있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모두 SPSS 18.0을 이용하여 연구문제별로 통계처리하였다. 연구문제 1을 밝히기 위해서 공감능력 전체 점수를, 연구문제 2를 밝히기 위해서 인지적 공감능력 점수를, 연구문제 3을 밝히기 위해서 정서적 공감능력 점수를 각각 상 30%, 중 40%, 하 30%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왜냐하면 조사연구를 통하여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공감능력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 검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집단에 대한 기술적 통계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연구문제에 따라 사례수가 다른 이유는 동점자 처리로 인해 각 집단에 속한 대상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연구문제별로 세 집단 간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F검증과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groups according to the empathy level

	Top			Medium			Bottom			Total		
	N	M	SD	N	M	SD	N	M	SD	N	M	SD
Overall empathy	85	3.73	.22	121	3.24	.13	94	2.84	.18	300	3.25	.39
Cognitive empathy	90	3.67	.26	141	3.19	.21	69	2.83	.22	300	3.34	.60
Emotional empathy	91	3.58	.38	138	3.17	.38	71	3.01	.34	300	3.16	.40

<Table 4>와 같이 공감능력의 전체 평균은 3.25이고 상집단의 평균은 3.73, 중집단은 3.24, 하집단은 2.84로 나타났으며, 인지적 공감능력의 평균은 3.34이고 상집단이 3.67, 중집단은 3.19, 하집단은 2.83로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능력의 평균은 3.16이고 상집단이 3.58, 중집단이 3.17, 하집단이 3.01로 나타났다.

Ⅲ. 연구 결과

1. 중학생의 전반적인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의 전반적인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감능력 수준에 따른 세 집단에 대하여 실시한 F검증과 사후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Results of F-testing among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overall empathy level

Configuration	Top(n=85)		Medium(n=121)		Bottom(n=94)		F	Scheffe
	M	SD	M	SD	M	SD		
Personal life	3.07	.90	2.81	.69	2.76	.81	3.94	
School life	3.04	.90	2.83	.77	2.70	.81	4.00	
Learning activities	3.29	.94	2.89	.81	2.80	.85	8.13***	a>b, c
Total	3.12	.82	2.84	.68	2.75	.77	5.97**	a>b, c

***p<.001 **p<.01 a: Top b: Medium c: Bottom

공감능력 상중하집단에 따른 수용태도의 검증 결과는 수용태도 전체(F=5.97, p<.01)와 하위영역인 학습활동(F=8.13, p<.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개인생활(F=3.94), 학교생활(F=4.00)에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수용태도 전체와 학습활동에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 test)을 실시한 결과, 공감능력 상집단이 중집단과 하집단에 비해 장애학생 수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집단과 하위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중학생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하위영역 중 인지적 공감능력 수준에 따른 세 집단에 대하여 F검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Results of F-testing among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cognitive empathy

Configuration	Top(n=90)		Medium(n=141)		Bottom(n=69)		F	Scheffe
	M	SD	M	SD	M	SD		
Personal life	3.14	.86	2.80	.73	2.65	.78	8.93***	a>b, c
School life	3.06	.93	2.85	.77	2.58	.74	6.85	
Learning activities	3.28	.97	2.94	.80	2.67	.79	10.30***	a>b, c
Total	3.15	.83	2.85	.70	2.63	.72	10.23**	a>b, c

***p<.001 **p<.01 a: Top b: Medium c: Bottom

중학생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수용태도 전체(F=10.23, p<.01)와 하위영역 중 개인생활(F=8.93, p<.001)과 학습활동(F=10.30, p<.001)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학교생활(F=6.85)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사후검증 결과는, 수용태도 전체와 개인생활, 학습활동에서 공감능력이 높은 상집단이 중집단과 하집단에 비해 장애학생 수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중학생의 정서적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하위영역 중 정서적 공감능력 수준에 따른 세 집단에 대하여 F검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Results of F-testing among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emotional empathy

Configuration	Top (n=91)		Medium (n=138)		Bottom (n=71)		F
	M	SD	M	SD	M	SD	
Personal life	2.73	.87	2.85	.71	3.07	.85	3.68
School life	2.72	.89	2.83	.72	3.04	.93	3.12
Learning activities	2.99	.93	2.89	.80	3.13	.94	1.87
Total	2.80	.83	2.86	.68	3.08	.81	2.94

정서적 공감능력 상중하집단에 따른 수용태도의 검증결과는 수용태도 전체(F=2.94)와 하위영역인 개인생활(F=3.68), 학교생활(F=3.12), 학습활동(F=1.87)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정서적 공감능력은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공감능력은 장애학생 수용태도 전체와 하위 영역 중 학습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이 높은 학생이 자신과 다른 특성이 더 부각되는 장애학생에게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는, 공감능력이 높은 참가자가 더 높은 환경적 행동과 태도를 보인다는 연구(Berenguer, 2007) 및 공감능력이 높은 학생이 특정한 상황에서 또래에 도움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Barnett & Thompson, 1984)와 맥락이 같다. 그리고 중학생은 아니지만 공감능력이 높은 대학생이 낮은 대학생보다 이타성향이 높다는 연구(Jo, 2006)와도 연구결과가 유사하다.

또한 공감능력이 높은 상집단의 학생이 중집단과 하집단에 비해 장애학생 수용태도 전체와 하위영역 중 학습활동에서만 장애학생 수용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감능력의 중집단과 하집단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경험유무가 공감능력과 장애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Shin(2009)의 연구에서는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별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는 통합교육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이타행동과 공감능력을 설명하고 있는데,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학생을 통합교육경험이 있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 학생을 통합교육경험이 없는 학생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은 자료의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수학급이 없지만 장애학생이 일반학급에 완전통합되어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통합교육경험이 없는 집단에 실제로는 통합교육경험이 있는 학생이 다수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통합 현장에서 이루어진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관한 선행연구(Ro, 2008; Han, 2008; Huh, 2010; Jung, 2008; Park, 2008; Lee, 2011; Oh, 2012)들은 성별, 학년, 통합유무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장애학생 수용태도를 분석하고 있어 본 연구와 직접적인 비교와 논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장애학생이 통합되어 있을 경우, 교사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을 함께 또래학습을 시키거나 프로젝트학습 등의 수업형태를 많이 활용한다. 이러한 수업상황에서 공감능력이 높은 일반학생은 장애학생 도우미나 또래교수자의 역할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학생에 비해 장애학생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

다. 그 결과 학습활동과 관련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둘째, 중학생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학교생활을 제외하고 인지적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인 관점은 다른 사람의 사상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Bridge et al., 1988)으로 이는 Kim(2007)이 공감능력 중 인지적 공감능력과 또래수용도를 살펴본 연구에서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은 학생이 또래수용도가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래의 관점을 취하려는 중학생의 인지적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후검정을 통해 살펴본 인지적 공감능력의 집단 간 차이에서는 공감능력이 높은 상집단이 장애학생 수용태도 전체와 학습활동 및 개인생활에서 긍정적인 수용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영역인 학교생활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복잡한 또래관계(Ah, Jeong & Cha, 2005; Jung, Kim & Lee, 2011)때문에, 인지적으로 장애학생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생활에서 장애학생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유추된다. 다시 말하면, 중학생의 또래관계는 집단행동의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은 학생이더라도 학교생활 영역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또래집단의 부정적인 태도를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공감능력 중 타인의 역할을 수용할 수 있는 역할수용이나 타인의 관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인지적 조망수용을 강조한 Shin(1994)의 연구는 본 연구와 같이 공감에서 인지적 능력이 타인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Shin(1994)의 연구와는 달리 공감요소를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나누어 접근했기 때문에 Shin(1994)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연구를 통해 공감능력 중에서도 인지적 공감능력이 높은 중학생은 공감능력이 중간이하인 학생에 비해 장애학생을 수용하는 태도가 긍정적이므로 인지적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정서적 공감능력은 장애학생의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록 직접 관련된 연구는 아니더라도 학령기 아동의 공감능력과 또래수용도에 대한 연구에서 인지적 요인보다 정서적 요인이 또래수용도와 더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Lee, 2005)는 본 연구와 다소 다른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또래집단과 장애학생은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인지적 요인보다 정서적 요인이 또래수용도와 더 큰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위의 연구는 정서적 요인보다 인지적 요인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와 더 큰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본 연구의 결론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Park(2012)은 공감하는 마음만으로는 장애수용태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느낌에 대한 반응으로서 정서적 공감능력은 인지적 발달수준에 영향을 받을(Hoffman, 1987) 뿐만 아니라, 높은 인지적 수준이 전제되어야 공감적 각성이나 정서적 공감이 일어난다는 점을(Feshbach, 1975, 1978) 고려한다면, 정서적 공감은 먼저 인지적으로 반응해야만 촉발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서적 공감능력과 인지적 공감능력 간의 관련성과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통하여 중학생의 공감능력은 부분적으로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인지적 공감능력이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태도를 개선시키는 교육을 할 때는 학생의 인지적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감능력이 높은 학생이 많아지면 학교는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다문화 학생과 새터민 학생 등 다양한 특성과 개성을 지닌 학생들이 조화를 이루는 학습공동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하여 전반적인 공감능력은 장애수용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감능력의 하위 영역별로는 다소 다른 결과를 보였다. 특히 인지적 공감능력이 장애수용태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서적 공감능력은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그 결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감능력과 함께 성별 등을 포함한 일반학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회적 지능, 인지양식, 통합경험 유무 등의 다양한 변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를 수행하여 장애학생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설명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학령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감능력 중심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가 수행된다면 장애학생을 포함하여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Ah, Y. A.・Jeong, W. C. & Cha, T. S.(2005). Th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s of bulling and the psychological factors affecting bullying behavior,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33, 390~403.

Barnett, M. A. & Thompson, S.(1984). The Role of Affective Perspective-Taking Ability and Empathic Disposition in the Child's Machiavellianism, Prosaical Behavior, and Motive for Helping, Annual Meeting of the Midwestern Psychological Association (Chicago, IL, May 2-5).

Berenguer, J.(2007). The Effect of Empathy in Proenvironmental Attitudes and Behaviors, *Environment and Behavior,* 39(2), 269~283.

Bridge, R. G.・Heckelman, W.・Shultz, C. & Trefry, M. (1988).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erspective taking, Unpublished manuscript,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Davis, M. H.(1980).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individual differences in empathy, *JSAS Catalog of Selected Documents in Psychology,* 10, 85.

Feshbach, N. D.(1975). Empathy in children: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Counseling Psychologist,* 5, 25~30.

Feshbach, N. D.(1978). Studies of empathic behaviors in children. In B. A. Maher(Ed.), *Progress in experimental personality research(Vol.8),* New York: Academic Press.

Gu, S. S.(2012).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ies and Social Abilities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Korean Council of Physical, Multiple & Health Disabilities,* 55(4), 377~393.

Han, J. H.(2008). Non-handicapped Students` Acceptant Attitude toward Handicapped Students in accordance with Integrated Education, Seoul city University Master Thesis.

Hoffman, M. L.(1987). The contribution of empathy to justice and moral judgment. In N. Eisenberg & J. Strayer(Eds.),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47~80),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Hong, K. M.(2004).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level and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Huh, J.(2010). A Study on Correlation Variables of Acceptance Attitudes of Nondisabled Middle School Students about Integrated Disabled Middle School Students, Deagu University Master Thesis.

Hwang, Y. L.(2008). The effects of empathy on the prosocial behavior of conduct disorder, Pusan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Hyun, K. H.(2012). The Relationships of Adolescent's empathic abilities to school adaptation and school violence, Dankuk University Master Thesis.

Jung, H. Y.・Kim, J. H. & Lee, K. H.(2011). Discriminant Analysis of Children's Peer Status based on their Conflict-Resolving Strategies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52,

209~301.

Jung, S. H. & Lee, H. Y.(2012). Influence of Mother and Peer Attachmen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Children,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60, 793~805.

Jung, Y. S.(2008). A Study on Middle School Students' Receptive Attitude to Disabled Students, Daegu University Master Thesis.

Jo, H. J.(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ltruistic Disposition, Ewha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Kim, E. A. & Lee, S. Y.(2011). The Roles of Empathy, Self-efficacy, and Beliefs in Classroom Norm in Defending Behavior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4(1), 59~77.

Kim, E. J. & Lee, H. Y.(2013). Gender, Cultural Disposition and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61, 181~191.

Kim, M. S.(2007). Effects of Empathy on Peer Acceptance and friendship of Higher Grade Elementary School Children, Seoul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Lee, H. K.(2001). The Effect of Empathy and Familiarity on Psychological Responses toward School Bully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5(3), 281~297.

Lee, H. K.(2003). The Effects of Cultural Tendency, Empathy and Conformity on Perception of School Bully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24.

Lee, H. K.(2007). Differences in Middle Schoo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by Subgroups of Hope and Empath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3), 751~766.

Lee, H. Y. & Cheon, T. B.(2005).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of Adolescents According to Grade, Gender and Parenting Behavior,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7(2), 228~239.

Lee, H. Y. & Oh, H. J.(2007).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to Parenting Attitude and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society for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19(2), 301~309.

Lee, S. J.(2005). The relation of empathy of children and peer acceptance of children, Ewha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Lee, Y. S.(2011). The Study of General Teenager`s Attitude of Accepting Disable Teenager in Intergrade Education, Hanyoung Theology University Master Thesis.

Meharabian, A. & Epstein, N.(1972). A measurement of emotional empathy, *Journal of Personality,* 40, 525~543.

Oh, S. O.(2012). Acceptance Attitude toward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je University Master Thesis.

Park, A. J.(2012). The Effects of Disability Awareness Program on Disability Acceptance Attitude, Empathy and Altruistic Behaviors in Elementary students without Handicaps, Dankuk University Master Thesis.

Park, D. H.(2008). The Effects of a Integrated Disability Understanding Educational Program, which is linked to the School Curriculum, on General Children's Attitude of Accepting and Awareness about Disability, Kongju National University Master Thesis.

Park, H. W.(2002). A study of effects of empathy training on the empathic ability and the self-esteem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Yonsei University Master Thesis.

Park, M.(2012). Cognitive and Affective Empathy : Implications for Psychopathology and Psychological Rehabilitation,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9(3), 387~405.

Park, S. H.(2004). Empathetic studies -Yesterday and today-, Seoul; Hakjisa.

Ro, M. L.(2008). A study on general highschool students' receptive attitude toward disabled students, Kyeongwon University Master Thesis.

Selman, R. O.(1980). *The growth or interpers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and clinical analysis,* New York: Academic Press.

Seol, H. S. · Kim, D. M. & Lee, S. H.(2006). Validation of the Emotional Empathy Scale using Reach Rating Scale Model. *Journal of Education Evaluation,* 19(2), 179-2-1.

Shin, K. I.(1994). Relations between the Cognitive, Affective and Communicative Components of the Empathic Process.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29(1), 1~37.
Shin, Y. S.(2009). The Effects of the Inclusive Education on Non-disabled Children and their Attitude toward Disabled Children, Ewha Women's University Master Thesis.

● 논문접수일 : 2013년 10월 19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3년 11월 25일
2차 - 2013년 12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12월 17일